

지역 소식통

김제시, 2024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4일부터 11일까지 저소득층·실직자 등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2024년도 공공근로사업 제2단계 참여자 총 114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사업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이며, 주요사업은 환경정비, 구내식당 보조, 행정사무보조 등이다.

임금은 시간당 9,860원(2024년 최저임금)이며, 근무일에 한해 5,000원의 교통·간식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며, 이후 시는 가구소득액,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참여자를 선발한 뒤 3월 26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음식점 시설개선지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시에 영업신고 후 2년이 경과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로 오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영업자가 김제시민이 아니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중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국제·지방세 체납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지원은 입식테이블 설치, 노후된 주방·화장실 위생시설 개선, 바다·벽면 등 환경개선 비용 등으로 업소당 최대 1,000만원(700만원까지 지원)이며, 시설개선지원 사업비의 30%는 업소 자부담이 필요하다.

신청은 김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고,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작성해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관내 음식점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지평선축제, 글로벌 축제 도약

2024 아시아 피너클 어워즈 베스트 교육상 수상 쾌거 사고·바가지요금 없는 지역축제 문화 선도 부분 인정

김제지평선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도약을 위한 걸음을 시작했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농경문화 축제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김제지평선축제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태국 춘부리주 파타야시에서 개최되는 2024 피너클 어워즈 및 아시아축제도시 컨퍼런스에 참가해 유명 글로벌 축제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김제지평선축제만의 감성과 매력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2024 피너클어워즈 및 아시아 축제도시 컨퍼런스(2024 Pinacle Awards and Asia Festival City Conference)는 세계축제협회 아시아지부에서 개최하여 미국과 뉴질랜드, 중국 등 해외 총 11개

국에서 2백여 명이 참가해 국제적인 축제 도시와 아시아의 세계 축제 도시 사례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축제를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행사는 태국중앙정부컨벤션시청(TECB), 태국정부관광청(TAT), 태국생태관광지역행정청(DASTA), 태국 춘부리주, 태국 파타야시 등 개최지 태국 중앙정부 기관의 지원 확대로 공신력이 확대된 가운데 세계축제협회 스티브 우드 슈메이더(Steve Wood Schmeider) 회장(미국)과 미국 텍사스주 맥알렌시 부시장 조 베라(Joe Vera), 전(前) 중국 칭다오국제맥주축제 수석 컨설턴트 림 싱위(Lin, Xing Yu) 등 세계 축제 전문가들을 비롯해 태국과

우리나라 30여 개 지자체가 함께했다.

특히 김제지평선축제가 안전하고 친절한 지역축제 문화를 선도한 부분을 인정받아 2024 아시아 피너클어워즈에서 베스트 교육상을 수상했다.

김제지평선축제는 안전사고 없고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 실현을 위해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결의 대회를 추진했다.

한편 제26회 김제지평선축제는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벽골제를 중심으로 김제시 일원에서 진행되며, ESG(Environmental 환경, 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 개념을 축제 운영 전반에 반영해 시민주도, 친환경, 소득창출을 키워드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지속 가능한 축제를 목표로 독보적인 농경문화 핵심 콘텐츠를 선보여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은 조영식 완주부군수가 최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방문에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복권기금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완주, 이서 혁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총력

조영식 부군수 기재부 복권위원회 방문 국가예산 반영 요청

완주군이 이서 혁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완주군은 조영식 완주부군수가 최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세종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복권기금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지난해 11월에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했으며, 이번에 복권기금위원회를 재차 방문해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확보를 거듭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조 부군수가 복권기금 사업 신청을 앞두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추진했다.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152억 원을 들여 주민들의 복지 수요에 맞춰 사업을 하고 있다.

조영식 부군수는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애로사항 등을 적극 알렸다"며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찾는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북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김제서 개최

출범 협의회 회칙 개정 등 논의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달 29일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에서 협의회장인 심민 임실군수의 주재로 민선 8기 2차년도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시군의 주요 안전과 축제 등 상호 홍보가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며 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주요 안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협의회 회칙 개정, △새만금 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 △전북권 광역전철망(서북) 운영, △한전 보안등 설치기준 변경에 따른 지침완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종제도 개선, △서해안(새만금-목포) 철도 건

설사업, △소규모 어가 수산직불금 지급요건 개선 등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 안건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중앙정부 사업에 건의할 계획이며 이후 논의되는 지역 현안사업에 관해서도 시·군이 공동연대해 전북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군별 축제는 김제 꽃빛드리 축제를 비롯해 △군산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익산 서동축제, △정읍 벚꽃축제, △남원 제약회 춘향제, △완주 삼례 딸기 축제, △진안 진안고원 운동장산 고로쇠 축제, △임실 옥정호 벚꽃축제, △고창 벚꽃축제로 참여 홍보 및 협력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회의를 마친 뒤 심중은실과 청년보육 실습농장 등 주요시설을 견학하며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운영 현황

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심민 협의회장은 "각종 행사와 현안 업무로 바쁜시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시 시장·군수들께 감사드린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시군 특례발굴 등 14개 시군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가 미래 먹거리와 녹색 성장을 만들어가는 농생명 중심 도시 김제에서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14개 시·군 모두가 합심해 김제시민을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농업경영체 민원센터 올해도 운영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변경 업무... 원거리 불편 해소

완주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 농업경영체 민원센터가 올해도 운영된다.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고산면 완주군농업기술센터 1층에 문을 연 완주 농업경영체민원센터는 전주시까지 이동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크게 덜어줬다.

완주군은 로컬푸드 발상지로 귀농

귀촌 인구 증가 및 농업업무 확대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품질관리원 완주 사무소가 없어 전주시에 있는 전북분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완주농업경영체 민원센터에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및 변경 업무를 전담하고, 상황에 따라 현지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오는 5월 31일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오전 10시~오후 5시) 운영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은 귀농 귀촌인구 증가 및 농업업무 확대로 민원센터 이용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길 바라고, 향후 완주사무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농업경영체 민원센터는 지난해 3월 개소해 8월 말까지 연장 운영됐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 아동복지기관협의회 위촉식

드림스타트 아동의 효과적인 공동개입 방향 모색

김제시(시장 정성주) 드림스타트는 지난달 29일 드림스타트센터(보건소 3층)에서 김제시아동복지기관협의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관내 아동복지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복지기관협의회 운영에 지역 내 아동복지기관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복지서비스연계·조정과 아동 및 가족의 변화를 위한 여러 전달체계의 효과적인 공동개입 방향을 모색, 위기에 처한 아동 및 가정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구성했다.

협의회는 총10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가족복지과장)을 비롯해 드림스타트팀장을 주축으로 보건·복지·보육(교육)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희망복지팀, 정신보건복지센터, 가족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

작으로 위촉장 전달, 기관 및 프로그램 소개 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및 가정에 대한 복합적(신체, 정서, 경제 등) 위기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통합사례회의도 함께 진행됐다.

아동복지기관협의회는 매월 1회 운영해 아동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 협의, 조정 등을 통해 맞춤형 아동통합 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효연 가족복지과장은 "드림스타트 대상 취약계층 아동 및 가정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기관협의회가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복지협력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해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